



전북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전북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는 지난 20~28일 '2025 환경보건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보건 전공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총 5회차로 진행된 교육은 박서현 전북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기초 개요'를 시작으로 문선인·충북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의 '환경보건 정보의 수집·이해·활용'에 대해 교육,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의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허정 군산시 기후환경과 주무관의 '화학 안전 이해와 위험성 정보 주민 고지'에 대해 강의가 이어졌고, 갈등 구조에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교육이 마무리 됐다. 이에 참가자들은 5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환경학적·보건학적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다. 더불어 장기적인 환경유해인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김용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소통 역량이 강화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마음안심버스 프로그램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28일, 남원소방서에서 열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마음안심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 보건소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현장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방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상황 시 이동 심리지원 상담과 뇌파·피파를 활용한 올니핏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검사(PHQ-9) 및 개별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필요시 자살 행동 척도 검사(SBQ-R)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등 4명이 참여해 맞춤형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했다.

김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TP 이규택 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 선출

"지역 간의 협력·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최선 다할 것"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 원장이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제70차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19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산업 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 강소기업과 기술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19개 테크노파크와 종양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해외 유관기관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규택 신임 회장은 전북TP의 수장으로 그간 도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R&D 지원,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의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전북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북의 미래 멀리 산업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전북 내 스마트 공장의 제조 혁신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기업 출신 멤토 30명을 3인 1조로 지원 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

을 제고하고 있다.

이규택 한국테크노파크 회장은 "전국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의 지역산업 육성 거점 역할과 4차산업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 기업을 키우고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동진천에 동자개 치어 10만 방류

정읍시가 28일 동진천에 토종 어종인 동자개 치어 약 10만 마리를 방류하며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수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냈다.

시는 전북지자체와 함께 해마다 치어 방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면별 환경 분석과 방류효과 조사를 병행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 방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류된 동자개는 전북도 수산물안전센터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로, 전장 4cm 이상 우량 종자다. 시는 이번 방류가 면이랑 안정화와 서식처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내수면 자원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암화공방 애화담과 '맞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기반 마련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8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암화공방 애화담(대표 윤영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우수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초기술훈련(30시간)과 직장 체험(100시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영애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직업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3-633-1977)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일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경험을 쌓아 자립 기반을 마련해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배추 모종 심기 행사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선열)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위한 배추 모종을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텃밭을 손질하고 배추 500포기를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에 심은 배추는, 연말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사용돼 관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선열 주민자치위원장은 "뜨거운 날씨에 배추를 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정성껏 배추를 키워 연말에 우리 이웃에게 맛있는 김치를 전달할 생각을 하면 아주 보람이 넘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사고에 대비해 현장 구조대원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무주소방서 구조대원 전원이 참여했다. 특히, 훈련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와 무주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실제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밀폐공간 질식 사고 사례 공유 및 이론 교육 △가스측정기, 송배풍기 등 전문 장비 사용법 숙지 및 활용 △삼각대를 이용한 요구조자 인양 훈련 △상황별 일부 부여를 통한 인명구조 훈련 △질식 사고 요구조자 응급처치 요령 습득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세정과, 주민세 거리 흥보 캠페인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7일, 세정과 직원 21명이 참여해 유동 인구가 많은 김제시청, 터미널, 홈플러스 사거리 등에서 약 1시간 동안 거리 흥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7,550건 41억원, 주민세(사업소분) 5,980건 9.3억원을 부과·고지했으며, 이번 거리 흥보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진행됐다.

시는 정기분 납기일 전까지 추가로 거리 흥보를 진행하여 주민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 행정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